

자료집 20-S17

제32차 직원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

일시 | 2020. 10. 6(화) 15시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집 20-S17

제32차 직원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

일시 | 2020. 10. 6(화) 15시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2차 직원역량강화 콜로키움



▣ **제목** 제32차 직원역량강화 콜로키움
-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

▣ **일시** 2020년 10월 6일(화) 15시

▣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5:00 ~15:10	등 록
15:10 ~16:00	강연자 : 김정학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16:00 ~16:10	휴 식
16:10 ~17:00	질의응답



Hate Speech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실태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Copyright © Slug. All right reserved.

Hate Speech Hate Crime 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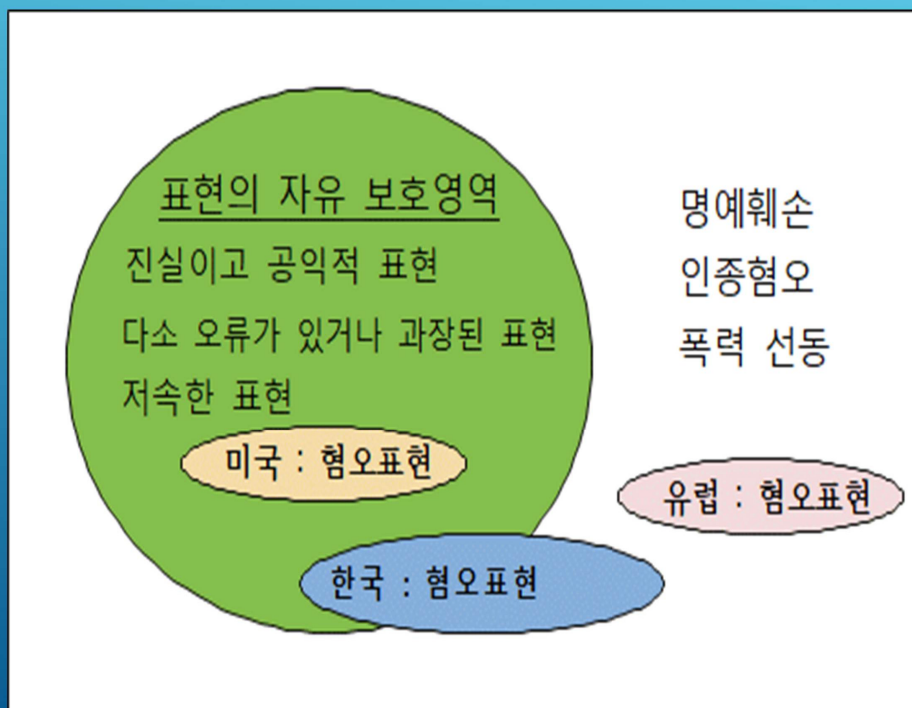
혐오표현, 혐오선동, 혐오발언, 증오표현, 증오범죄, 증오선동, 혐오차별,
차별적 혐오발언, 혐오, 증오

→ 개념 정의 및 규제 범위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 혐오표현 규제가 어려운 이유

- 개념 정의의 어려움
-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움
- 규제대상 규정의 어려움 : 표현의 자유, 검열과의 관계
- 디지털 기술과 언택트 문화의 발달로 인한 어려움(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 유럽, 미국과는 달리 인종이나 종교로 촉발된 혐오표현 관련 역사적 경험 없음
 -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 낮음
 - 법규 적용의 어려움 :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모욕(형법), 위해정보(정보통신망법)
 - 피해자 개인이 아닌 특정 집단을 향한 모욕, 비하 등 혐오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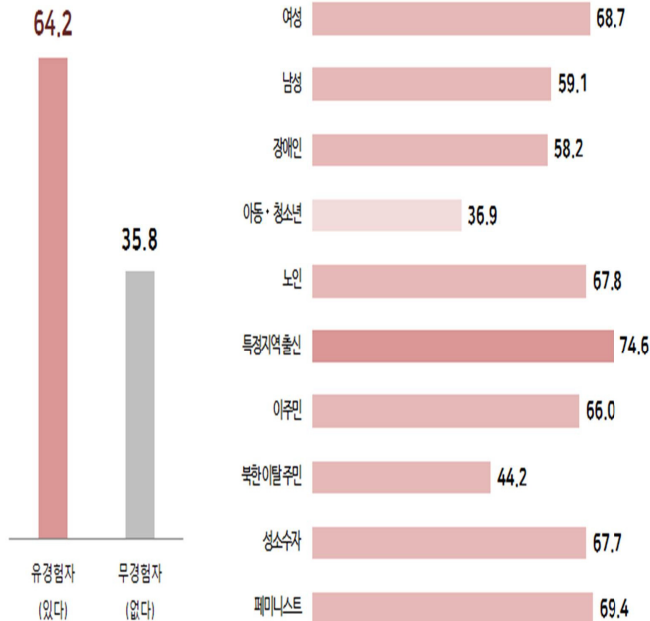
|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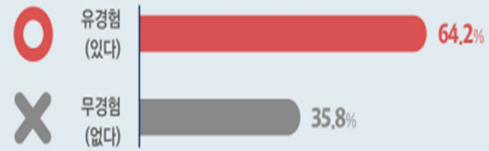
2019년 국민인식조사-혐오표현 피해경험

전반적 혐오표현 경험 유무 (n=12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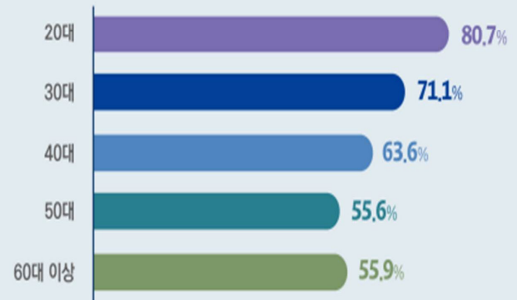
대상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n=770, 단위: %)



혐오표현 경험 유무



연령별 혐오표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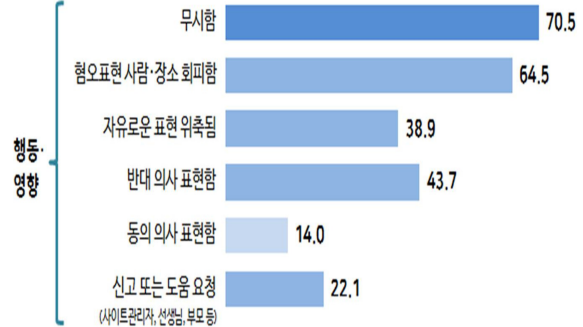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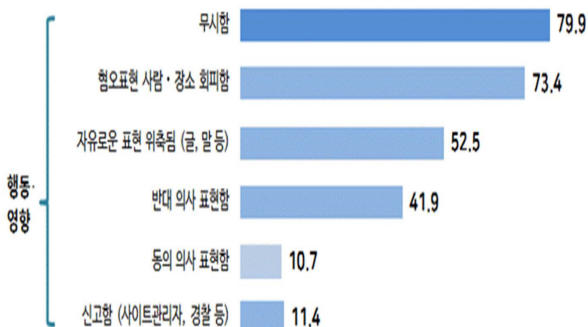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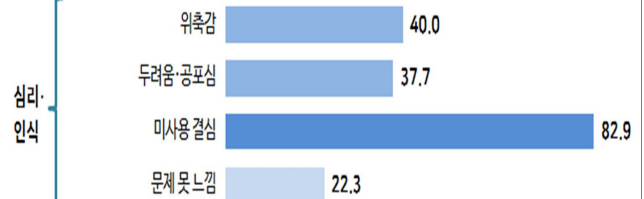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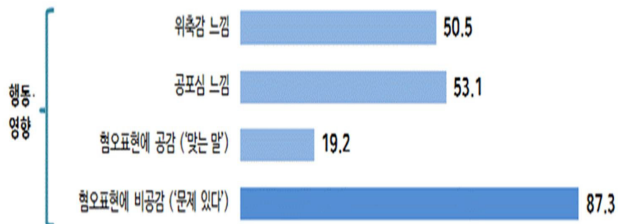
2019년 국민인식조사-혐오표현 영향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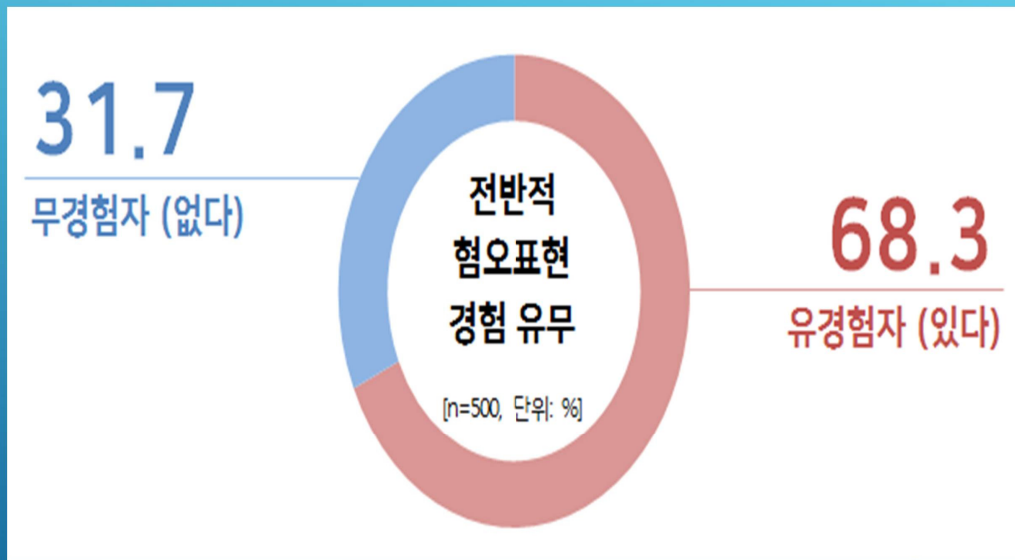
<청소년>

혐오표현 영향 (n=770, 단위: %)

혐오표현 영향 (n=33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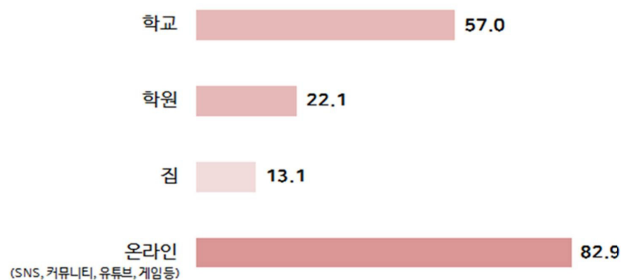
| 청소년 혐오표현 경험 - 2019년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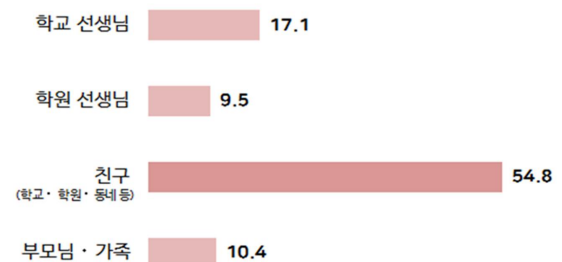
온라인 활동을 안 하는 청소년은 혐오표현 경험이 54%

| 청소년 혐오표현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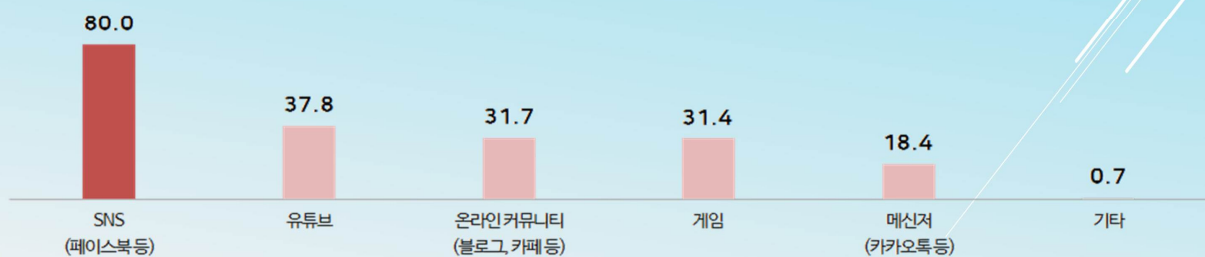
장소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n=336, 단위: %)



주체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n=33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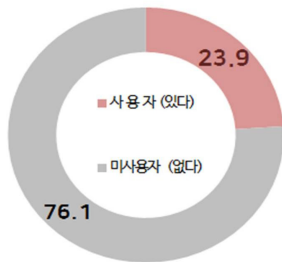


고빈도 혐오표현 온라인 활동 유형 (1+2순위) (n=3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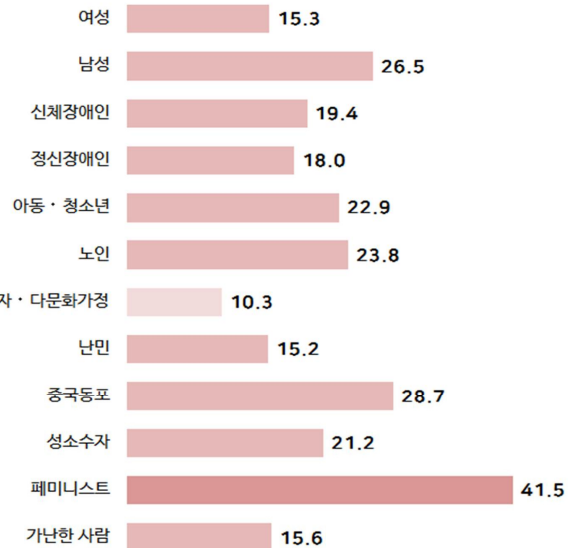


| 청소년 혐오표현 사용 이유, 대상

전반적 혐오표현 사용 여부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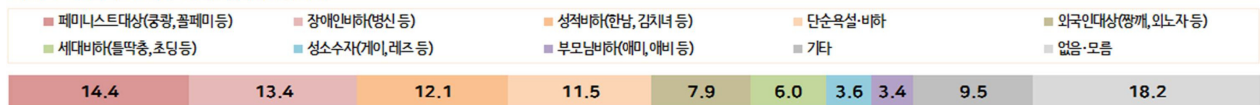
대상별 혐오표현 사용 빈도 (n=120, 단위: %)



혐오표현 사용 이유 (n=1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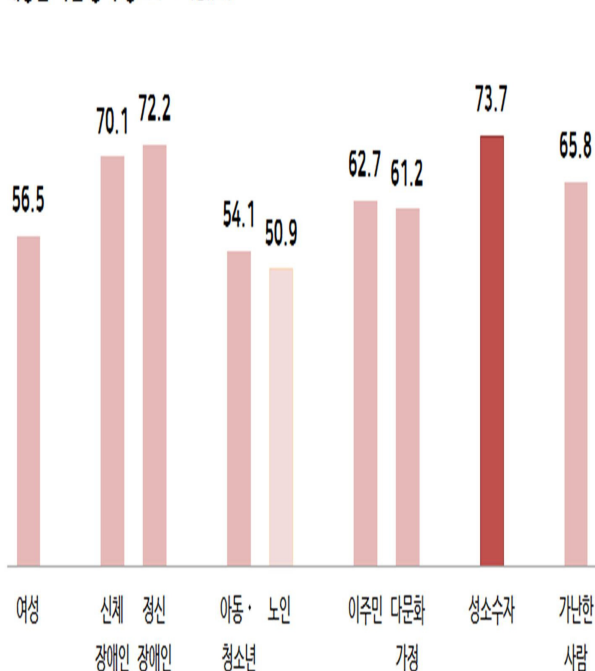


자주 쓰는 혐오표현 사례 (n=1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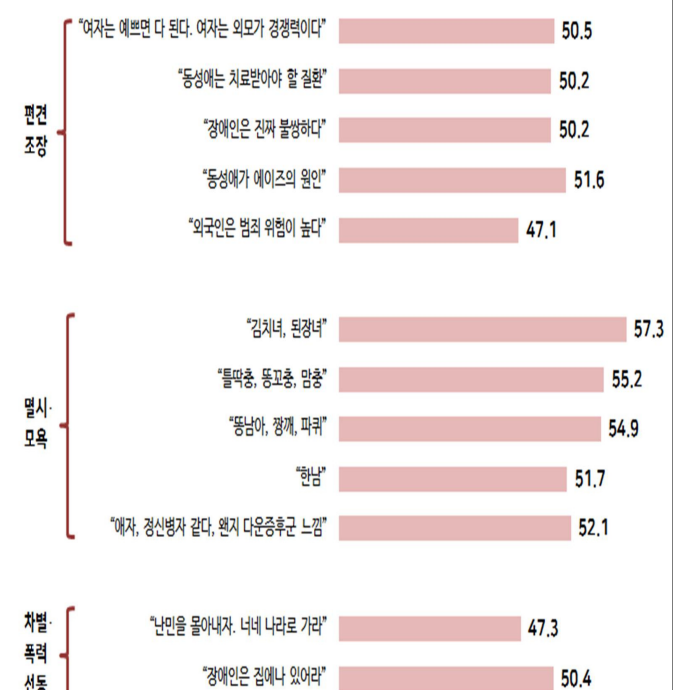


| 청소년 혐오표현 대상별 동의 정도

대상별 차별 동의 정도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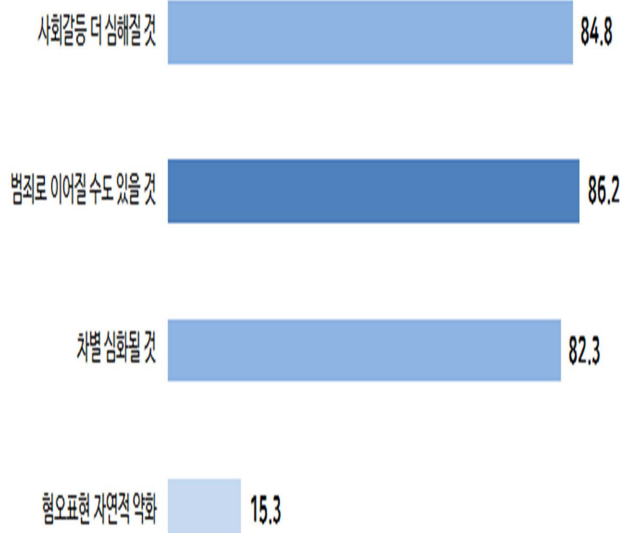


혐오표현 동의 정도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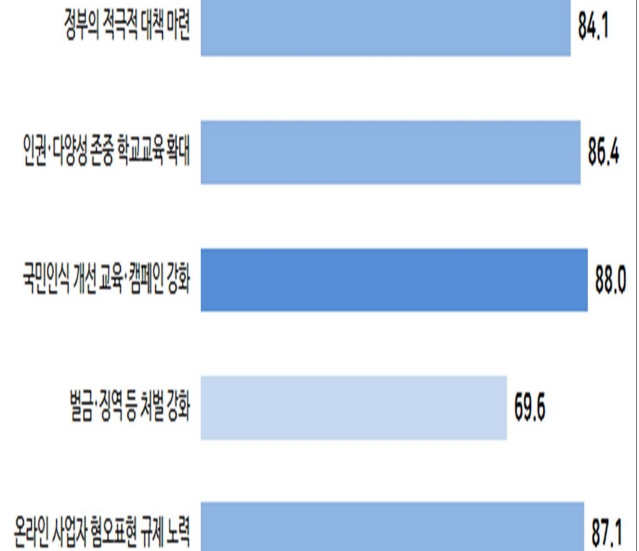


청소년이 생각하는 혐오표현 대응 정책

혐오차별 관련 전망 동의 정도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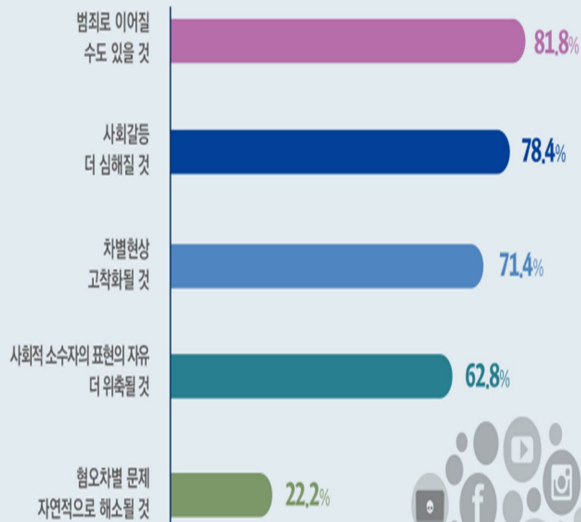


혐오차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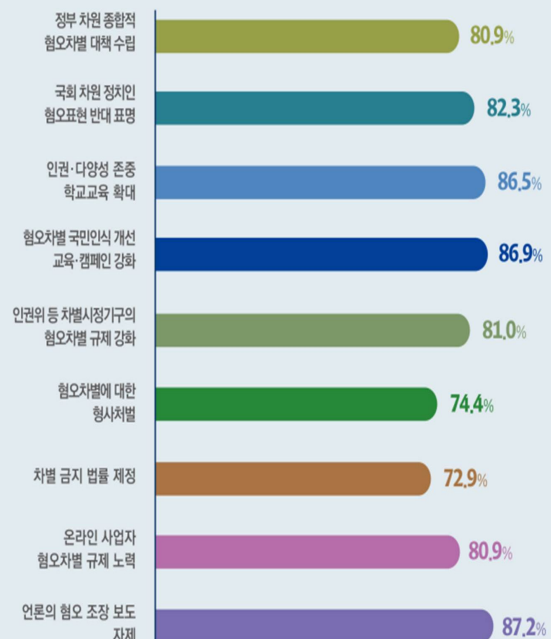


혐오표현 전망과 대응방안(2019 국민인식조사)

● 혐오표현 관련 전망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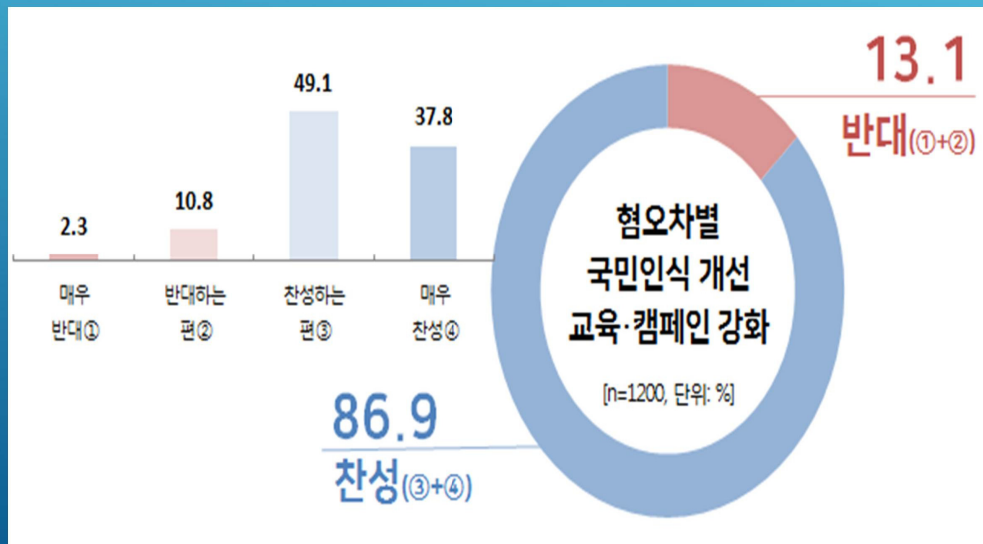
● 혐오표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



규제에 앞서 인식전환의 중요성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응답자 1,200명의 86.9%

→ 인식개선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해야



| 혐오에 갇혀 신음하는 대한민국

민족 지역 동성애

장애 젠더 고용형태

종교 외국인 난민

| 지구촌의 혐오

- 네오나치의 재등장, 유럽 내 반이민정서 확대,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 증가
- IS와 반이슬람주의
- 브렉시트와 반이민정서 확대
 - 폴란드 정치인 Janusz Korwin-Mikke 사건 (2017)
 -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고 작고 덜 똑똑하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아야한다” 는 여성 혐오표현으로, “hateful remarks” 징계를 받음
 - 네덜란드 정치인 Geert Wilders 사건 (2014)
 - 지지자들에게 “모로코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냐 더 적었으면 좋겠냐”고 묻고, 지지자들이 “fewer”라고 답하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여,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혐의로 기소
 - 벨기에 국민전선당 의장 Daniel Feret 사건 (2009)
 - 선거기간 중 “벨기에의 이슬람화에 맞서라”, “비유럽 구직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선전물 배포로 증오선동죄 기소(사회봉사 10시간, 10년간의 의원자격 상실)

| 한국에서의 혐오 확산

▶ 민주화 + 산업화

- ▶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소외된 계층들의 불만 혹은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 ▶ 이를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의 소수자집단들 → 다름과 차이를 열등, 불결, 혹은 위험함의 징표로 제시
- ▶ 다양한 평등실현조치들 혹은 소수자들의 역량강화 → 상대적 박탈감을 “역차별”로 포장, 공격
 - ▶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결정 → 여성혐오

▶ 급속한 정보화

- ▶ 1995년 전자정부 11대 과제 → 정보고속도로: 콘텐츠 부재의 H/W만의 확산 → 사이버공간의 “해방”
- ▶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 반대운동 또한 인터넷상으로 조직 → 2020년 평등법 반대 활동
- ▶ 2014년 일베, 그리고 현재의 각종 단톡방과 유튜브

▶ 코로나19로 혐오차별 정서 확산

- ▶ 나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한편으론 타인을 혐오

| 혐오, 혐오표현

- 일상적 의미의 혐오 : 싫어하고 미워함, 혐오식품, 혐오시설
- 혐오표현(Hate Speech), 혐오발언, 혐오
 -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감정으로서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 성차별주의 등 이데올로기에 기반함
 - 혐오표현에서의 혐오는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
 - 표현에는 발언, 연설, 복장(kkk단의 하얀 옷), 상징물(나치문양) 등이 포함

사회적 소수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소수자는 지배 집단에 대비한 피지배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반드시 수적 소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2015)

☞ 혐오표현을 반드시 '소수자'에 대한 적의적 표현에서 벗어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일부 국가 시행)

| 혐오의 해악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 인간을 “짓밟을 수 있는 등급”으로 비하하고 멸시
- 혐오의 사유:
 -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변경불가
 - 혐오행위로 인하여 공포감, 위축감, 스트레스 → 무력감 → 자기부정, 정체성회의
- 집단 수준의 위해
 - 개인적인 자기부정뿐 아니라 그 속성 자체에 대한 부정 내지는 그러한 속성을 공유하는 집단 자체도 부정
 - 개인적 노력으로 일정한 계층상승, 지위상승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된 계층, 지위과 혐오대상인 속성 자체를 변경하지 않음
 - 결국 원래로 회귀하거나 자신의 집단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 누적, 강화
- 결국 인간성 자체를 부정·인권의 가치 부정

| 혐오표현의 개념화

- 혐오표현(Hate Speech)
 - 혐오범죄의 현상도 존재하지만 그 해악을 고려할 때 혐오범죄의 전단계이자 보다 포괄적인 혐오표현을 문제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혐오행위도 존재하나, 이 또한 “행위”성 보다는 그 행위에 담겨 있는 낙인찍기와 배제의 의사가 본질적
- 혐오표현의 개념화
 - 혐오표현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종합개념
 -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현 시대적 문제를 반영

| 혐오표현의 개념 요소

- ① 부정적인 편견·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특정 속성을 지정하고 이 속성을 바탕으로 일부의 사람들을 구획하여 집단으로 구성하며
 - ② 이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비하·멸시 위협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하는,
 - ③ 제반의 표현(행위)들
- 부가적 요소로 ④ 그 표적이 되는 대상 집단에 대한 기존의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거나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 2)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과 폭력에 동참시키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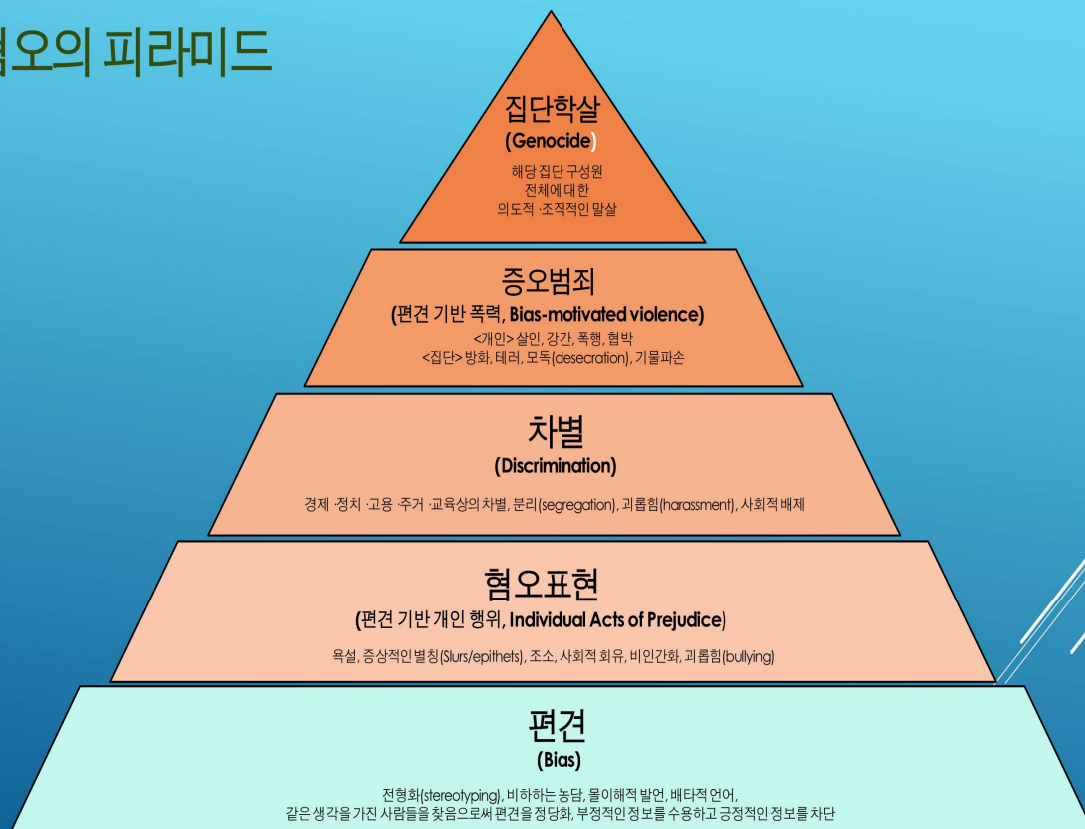
| 혐오표현의 유형

- 모욕형 혐오표현:
 - 대상자 집단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표현
 - 열등하거나 비생산적이거나 혹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로 일반화
 - 개인적 인식이나 평가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의식을 강화함
- 선동형 혐오표현:
 -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
 -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여 대중들의 증오심을 고취하고 그들이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거나, 조장, 선전, 선동
 -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도한 경우가 대부분
- 양자가 혼용되는 경우도 많음

| 역사부정과 혐오표현

- 역사부정
 - 반인륜적인 범죄사실을 부정, 왜곡하거나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
 - 반인륜적 범죄들은 주로 소수자(집단)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를 부정하는 행위들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으로 연결
-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제주 4.3사건 왜곡
 - 특히 5.18부정의 경우는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복합되어 반인륜성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음
- 독일은 홀로코스트 역사부정죄 등에 대해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처벌

혐오의 피라미드



출처: <http://www.adl.org/assets/pdf/education-outreach/Pyramid-of-Hate.pdf>

|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소셜미디어

* 혐오표현이 '표현'인 이상, 규제는 신중히 - 상호 보완관계

1) 표현의 자유 근본주의

- 물리적 위험이 임박/명백하지 않는 한 국가 개입을 일관되게 불허
- 나쁜 표현에 '더 많은 표현'으로 싸우자! 전투적 자유주의 (미국의 길)

2) 규제 옹호론

- 소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표현 금지(UN, EU의 권고)
- 자유, 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 금지

*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자유롭게 소통, 토론되는 공간인가?(자율규제 강조)

〈유럽연합은 2016년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기준' 을 통해 IT기업의 혐오표현 콘텐츠 삭제 의무 부여〉

| 주요 플랫폼의 혐오표현 자체 규제

• 페이스북

-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적지향, 성별 또는 성별정체성,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과 같이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타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혐오 발언으로 정의

• 유튜브

- 연령, 카스트, 장애, 민족, 젠더 정체성 및 표현, 국적, 인종, 이민 상태, 종교, 성/젠더, 성적지향, 주요 폭력적 사건의 피해자와 친족, 퇴역군인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 폭력이나 증오를 고취하는 콘텐츠는 삭제

• 인스타그램

- 인종, 민족, 국적, 성별, 나이, 성 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는 불허

◆ 인공지능 봇(bot)에 의한 과도한 삭제 우려로 알고리즘 공개, 투명성 요구 목소리

|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해외 입법

- 독일 : 네트워크집행법(2018)
 - 형법에 규정된 21가지 불법행위(증오선동, 나치찬양, 역사부정 등)는 이용자 신고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200만명 이상 가입)가 신속하게 삭제할 의무 부과
- 프랑스 : 온라인 혐오 콘텐츠 대응법(2020.5)
 - 형법과 언론자유법에 민족, 국가, 인종, 종교, 성별, 성적지향, 장애를 이유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이용자 신고로 24시간 이내 삭제 등
 - 아동 성착취 또는 테러관련 콘텐츠는 신고 1시간 이내 삭제 의무 부과
- 프랑스 위헌 결정(6월)
 - 삭제할 콘텐츠 결정을 법관의 개입 없이 플랫폼에게 맡기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며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게시물 삭제를 초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 한국의 혐오표현 대응, 현실은...

- 범정부 차원의 조치, 관련 법률 등 미비
- 정치지도자나 사회유력인사가 오히려 혐오를 양산
- 시민사회나 기업 차원의 자율적 규제, 대응 미미
- 차별행위나 증오범죄 단계에서의 강력한 대응도 없음
- 특히,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정부, IT기업, 시민사회 참여 자율규제 미비
(최근 네이버 웹툰의 여성혐오 문제 등 사회갈등 상존)

| 혐오표현 자율규제와 대응 방안의 방향

- 가장 좋은 대안으로서의 대항표현(counter-speech), ‘더 많은 표현’(more speech)
-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정책
- 차별 받는 소수자를 ‘옹호/지지’하는 정책
-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 규범 마련
- 정치인 또는 정부의 혐오표현 반대 선언
- 입법적 규제 - 혐오표현금지법 - 혐오범죄예방법 - 평등법 등

저마다의 빛깔로



슬로건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는

편견 없이 마주함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존중받고,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우러질 수 있음을
표현하였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 인권존중 학교실천 혐오표현 대응 교육감 선언



아동·청소년을 위한 혐오표현 대응 실천행동

배우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차별에 반대하고, 혐오를 추구해야 하는 개념을 배우고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편견과 차별에 민감한 만큼 군소성을 지우기 위해 배우고 토론하겠습니다.
2. 혐오표현의 개념과 양태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수업에 혐오·차별 등 학교생활 중에 지병 반대, 인권침해·차별 혐오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4. 학교생활에서 폭력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안전 확보는 노력이 가능한 시도를 요구하겠습니다.
5. 혐오표현 예방교육과 혐오표현 시연에 대한 학교의 대응에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학교 안 혐오표현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6.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모든 학교가 보고·대응하여 대응하며, 혐오의 도를 줄여나겠습니다.
7. 혐오표현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교적으로 풀고 토론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입니다."

8. 개인적 존엄성을 지키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학교를 교육에 집중하고 안전한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각종 미디어·TV, 인터넷, SNS, 게임,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해 혐오와 차별이 있는지 주기 점검하고, 인터넷 혐오표현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10.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차별이 없도록 심의하고 활동·대응에 대해 노력하며,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원을 위한 혐오표현 대응 실천행동

배우겠습니다

"교직원은 차별에 반대하고, 혐오를 추구해야 하는 개념을 배우고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편견과 차별에 민감한 만큼 군소성을 지우기 위해 배우고 토론하겠습니다.
2. 혐오표현의 개념과 양태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교직원은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를 살펴보고 구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3. 학교생활에서 폭력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안전 확보는 노력이 가능한 시도를 요구하겠습니다.
4. 학교생활에서 폭력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안전 확보는 노력이 가능한 시도를 요구하겠습니다.
5. 혐오표현 예방교육과 혐오표현 시연에 대한 학교의 대응에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교직원은 학교 안 혐오표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6. 혐오표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학교가 보고·대응하여 대응하며, 혐오의 도를 줄여나겠습니다.
7. 혐오표현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교적으로 풀고 토론하겠습니다.
8. 개인적 존엄성을 지키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학교를 교육에 집중하고 안전한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각종 미디어·TV, 인터넷, SNS, 게임,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해 혐오와 차별이 있는지 주기 점검하고, 인터넷 혐오표현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10.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차별이 없도록 심의하고 활동·대응에 대해 노력하며,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 A

감사합니다.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제32차 직원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